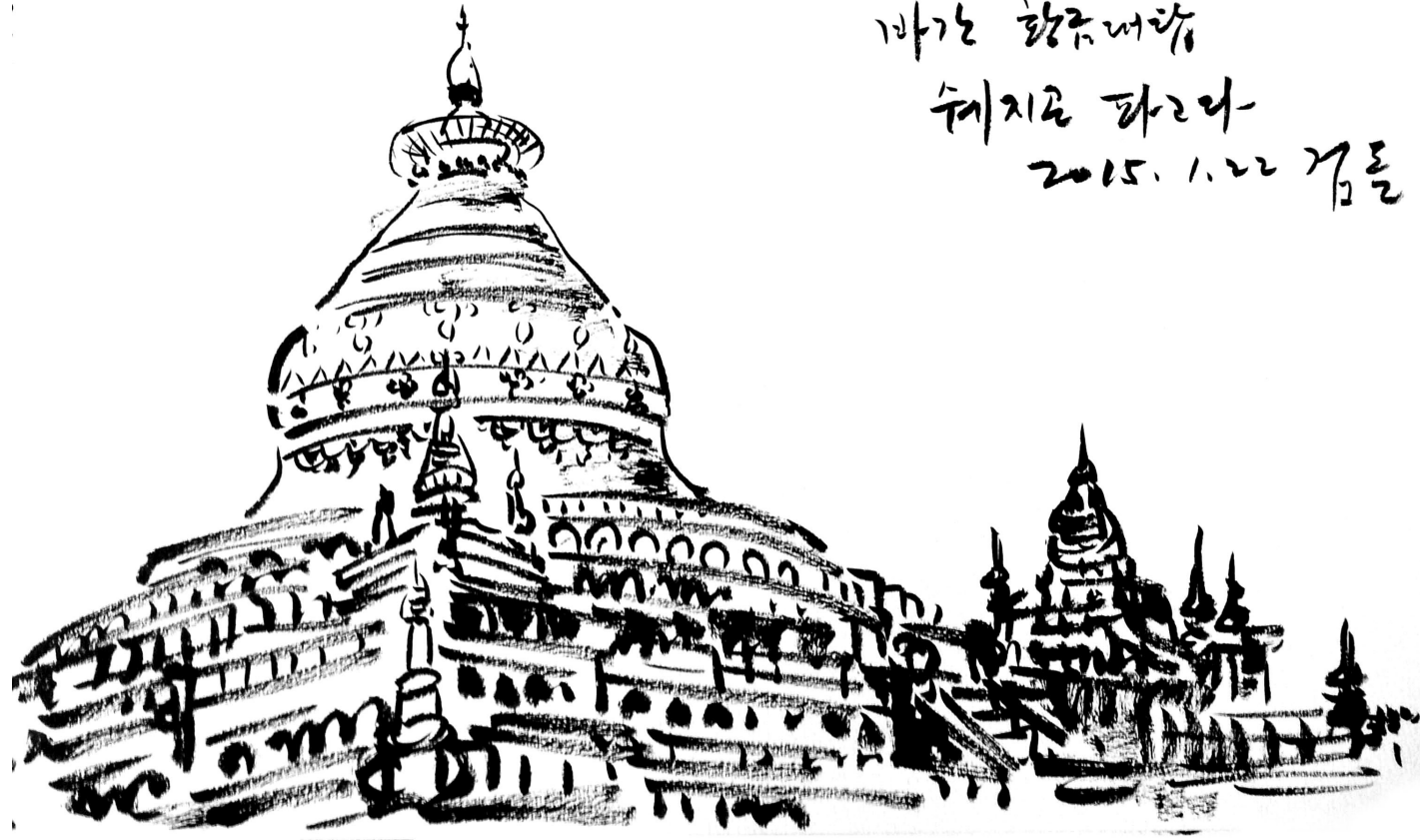


황금부처님의 나라를 가다 ①

그림 이호신·글 이종성 작가

불탑이 지친 마음 위로... 영혼은 빛을 얻네



쉐지곤 파고다는 부처님의 앞머리뼈와 모조 치아 사리가 모셔져 있다고 한다. 거대한 황금빛 사원이 푸른 하늘 아래 웅장하다.

바간 황금나라  
쉐지곤 파고다  
2015. 1.22 경문

작가는 끝까지 현역이어야 한다.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숨결만이 깊은 호흡이 된다. 시간의 궤적을 따라 아로새겨지는 정신의 무늬를 탐조할 때 영혼은 빛을 얻고 길은 미래로 향한다. 여러 해 지리산에서 시인과 화가가 만나 순례를 거듭해 왔다. 그동안 이미 세계의 수많은 불교유적을 찾아서 각 나라를 탐방하여 천불만다라를 완성한 이호신 화백과 이종성 시인이 1월 21~26일까지 4박 6일 동안 여행한 미얀마의 숨결과 정신을 4회에 걸쳐 실는다.

(편집자 주)

만남과 성찰의 길에 오르다

새로운 시작은 떠남에서 비롯된다. 어떤 일을 매듭 짓고 난 후이거나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여행을 떠올린다. 그렇지 않더라도 현실은 종종 나를 가두는 감옥일 때가 많다. 그 감옥을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여행이다.

김해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한 시간 반 정도의 비행 후 마치고 북경공항에 도착한다. 다시 미얀마로 가기 위해 환승수속을 밟는다. 출발할 때부터 발부된 티켓을 소지하고 줄을 선다. 줄이 길다. 절차가 까다롭고, 전반적으로 출입국관리(immigration)가 복잡하게 느껴진다. 저녁을 먹고 나니 출발시간이 가

까워졌다. 출국 게이트로 향한다. 떠날 곳에서 떠날 곳을 본다. 경유지에서 또 떠나는 곳을 본다. 여행은 낯선 길 위에서 그렇게 이어진다.

이륙한 비행기는 미지의 세상을 향하여 순항에 들어간다. 비몽사몽,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현지 시간 22시 50분(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 20분) 미얀마 양곤 민글라돈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현지 가이드가 반겨 맞는다. 잠시 차를 타고 숙소인 호텔로 간다. 바깥 환경, 소형 냉장고 소리, 놓친 취침 시간 등 쉬이 잠이 오지 않는다.

볼토의 첫 아침 붉은 미소로 동트다

새벽 4시 모닝콜이 울린다. 바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으로 간다. 공항의 모습은 우리나라 칠십 년대의 풍경 그대로다. 새벽시간에 처음으로 만나보는 미얀마의 사람들, 순박하고 조용하고 꾸밈이 없다. 순일 무잡한 흰 꽃 '스페'를 들고 '원 달러'라고 마지막에 말하는 여인들이 보인다. 저 꽃의 용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 꽃 이름은 이후 방문한 사원에서 현지인에게 물어보고 알게 되었다. 인동의 향기가 맡게 배웠다. 간단한 탑승수속을 마치고, 나올 때 호텔에서 도시락으로 제공한 아침을 먹는다. 포토 그래픽 전문호 선생님의 0교시 수업 '색시와 아주머니의 어원과 음운론'이 여행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비행기는 제트엔진이 아닌 프로펠러 소형 비행기다. 여행의 고전적 기대감이 더해진다. 미지의 땅, 황금의 나라, 볼토(佛土)로 가는 첫 일정이다. 승객들을 맞는 스튜어디스의 미소가 붉다. 이제 막 동트기 시작하는 아침의 노을빛 색조와 닮았다. 여명이다. 저

미얀마 최대성지 바간... 2700여기 불탑 산재

성인식, 마을 잔치 이후 절에서 삭발의식

황금탑 '쉐지곤 파고다'... 맨발 입장 인상적

아난다사원, 동서남북 9.5m 목조불상



높이 9.5미터에 달하는 아난다사원 목조불상

붉은 미소 속에서 부처의 미소가 보인다. 아내의 미소 또한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륙한 비행기가 바간을 향하여 날아간다. 오전 6시 38분 기내의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른다. 비야호로 이 불국토의 땅에 종이 뜨고 있는 것이다.

마을의 축제 진기한 성인식을 보다

바간에 도착하여 차를 타고 이동한다. 바간은 미얀마가 가장 강성했던 아노라타왕 때 통일왕국의 수도였고, 약 1287년 몽골족의 침입으로 인한 멸망과 그 이후 대지진 등으로 상당수가 파괴되고 남은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바간은 미얀마 최대의 성지이자 황금 불탑의 도시로 대략 2700여 기의 불탑이 산재해 있고,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미얀마 전통시장을 보러 시내로 향한다. 목적지 근처에 이른다. 차와 사람의 물결이 온통 거리를 메웠고, 흥겨운 노래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진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진풍경이 벌어졌다. 색색의 미얀마 전통 의상(남자는 빼소, 여자는 타메인)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행렬이 장관이다. 얼굴은 자외선 차단제이자 천연화장품이라고 하는 '파나까'로 분장을 하였다. 선두 차량은 온통 악기들로 꾸며져 있고, 하늘과 땅과 영혼을 두드리는 울림이 생생히 전해진다. 그 뒤를 따라 코끼리, 물소, 말 등이 끄는 수레를 타고 있는 아이들과 걸어서 이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긴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은 이 진기한 풍경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사진을 찍거나 캠코더로 촬영에 바쁘다. 현지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성인식'이라고 한다. 그동안 녀석기 못한 집안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치르지 못했던 그 의식을 이날 모두 모여 한꺼번에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식을 거행하는 날인데, 마침 그날 우리 일행이 도착하여 보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된 것이다. 성인식 다음날에는 마을에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진 후에 절에 가서 삭발을 한다고 한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치르는 일생일대의 성대한 행사로 그 의미가 진중하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전의 부처를 살고자 하는 미얀마인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이다. 순수한 자기 문화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뿜어내는 배재지 않는 영혼의 색채요 풍경이다.

행렬에서 나와 전래시장으로 향한다. 아보카도, 두리안, 파파야, 망고 등 이름이 생소한 열대과일들이 지천이다. 아이에게 간식을 먹이며 장사하는 아낙네며, 고산지의 생산물을 팔고 있는 처녀들이며 시장은 활기가 넘친다.

황금사원의 빛에 물들다

황금 대탑 '쉐지곤 파고다'에 도착한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입장한다. 맨발! 참 좋다. 시원하다. 아플 때도 있지만 맨발로 오는 것들을 나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슬, 눈물, 꽃, 슬픔, 기쁨, 해, 달, 별, 사랑,

아기 등 모두가 맨발이다. 맨발은 하심(下心)이다. 하심 없는 걸음이란 구경일 뿐이다. 대상에 갖든 의미의 빛, 삶의 빛 그 자체를 보는 관광(觀光)이어야 한다고 보는 신발이 귀찮아진다. 우리나라에서 신발을 벗고 입장했던 기억의 장소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오랜만에 맨발로 걷는 걸음이 흥분분하다.

쉐지곤 파고다는 부처님의 앞머리뼈와 모조 치아 사리가 모셔져 있다고 한다. 거대한 황금빛 사원이 푸른 하늘 아래 웅장하다. 미얀마 전체 탑의 원형격이며 '불탑의 어머니'라고 불려진다. 기원전 1059년 아노라타왕 때 짓기 시작하여 그의 아들 잔시타왕이 1085년에 완공한 탑이다. '쉐(shwe)'는 금을 의미하고, '지곤(zigon)'은 모래언덕이라는 설명이다. 높이는 대략 50미터에 달하고 정방형의 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 양곤의 쉘다곤 파고다(Shwedagon Pagoda)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아무리 보아도 커다란 종을 얹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미얀마의 탑은 크게 두 가지로 형태로 나뉜다. 탑의 내부에 공간이 없이 매워진 밀폐된 형태의 '제다' 양식이 있고, 그에 반하여 탑의 내부에 불상이 모셔져 있고 기도 공간이 있는 '파도' 양식의 탑이 있다. 이 쉘지곤 파고다는 제다 형식이다. 미얀마에서는 일반적으로 불탑의 보통 명칭으로 '파야(Phaya)'란 용어를 쓰고 있다. 사원은 먼저 옷칠을 하고 그 위에 금을 입히는 작업을 통해 유지보수가 이루어진다. 그러한 작업을 개금이라 한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유럽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원의 건축 재료는 돌을 벽돌 크기의 형태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단의 일부 아랫부분이 마감 재료를 대지 않고 그대로 두어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난다 사원, 극치에 이른 순일한 조형미 일품

이러 아난다 사원으로 이동한다. 1091년경 잔시타왕이 부처님의 제자 아난존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사원이다. 동서남북 네 군데에 높이 9.5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목조 불상을 모셨다. 남쪽과 북쪽의 불상은 당대의 것이고, 동쪽과 서쪽의 불상은 화재로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모두가 극치에 이른 순일한 황금빛 조형미가 아름답고 화려하다. 사원의 내부는 동서남북으로 돌 수 있는 회랑이 3개가 있다. 가장 안쪽은 왕이 다니는 통로이고, 중간은 귀족들이 다니고, 가장 바깥쪽은 일반 서민들이 다니는 통로였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안쪽 가까이 올수록 부처님의 얼굴이 매우 근엄하고 무서운 모습이고, 서민들이 다니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환한 미소로 보인다는 점이다. 권위가 높고 가진 자에게는 엄하여 평정심을 잃지 마라는 메시지요, 서민에게는 한없이 자애롭고 온유하여 희망의 빛을 끊임없이 비추고자 했던 부처의 마음이었으리라. 극적의 경지에 이른 예술미와 구도 정신의 조화가 이른 아름다움이 오래도록 뇌리에 남을 것이다. 그밖에 도 내벽의 수많은 감실에 작은 불상들이 모셔져 있다.

과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아미타경 해설,

동봉 스님의 삶과 수행 이야기가 담긴 수필처럼 아름다운 경전 해설

부록 독송하기 쉬운 아미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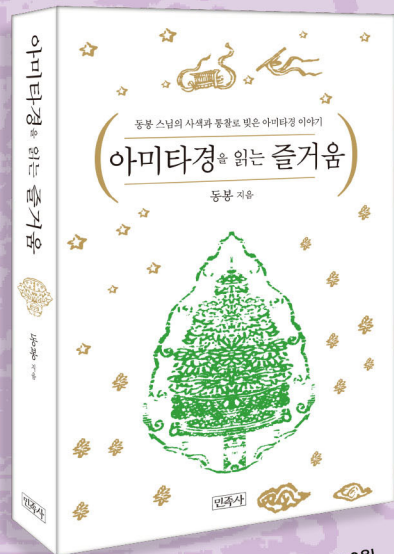
동봉 스님의 사색과 통찰로 빛은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지구환경이 병들면 생명도 아픕니다. 지구환경이 쾌적할 때 다른 생명은 우선 접어들고라도 인간의 삶도 건강합니다. 환경을 다루고 있는 아미타경은 그래서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염려하시는 경전입니다. 네가 아프기에 나도 아프다. 곧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본문 중에서

MBC 스페셜 '동봉, 킬리만자로에 가다'를 통해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을 구호하는 모습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친근한 동봉 스님의 57번째 저서.



동봉 지음 | 신국판 양장 580쪽 | 23,000원

민족사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빌딩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s.com 이메일, minjoksas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원재승)

월호 스님과 배중훈 작가의 환상적인 만남이 빚어낸

참선과 카툰의 만남

월호 스님의 참선 이야기와 나의 수행일기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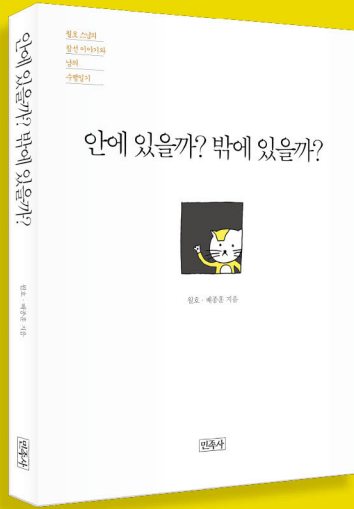
힐링을 넘어 근원적인 행복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명상이라 한다면, 그 관찰자를 관찰하는 것이 참선이다. (중략) 플라톤의 고양이와 천국에 원본이 있다. 현실의 고양이는 사본에 불과하다. 하지만 참선의 고양이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항상 귀중한 원본이다. 고양이 이름 살려낼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대에게 달려 있다."

-월호 스님

"남은 고양이를 넘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생명으로 늘 그 경계에서 감동해야 하는 모습이 고양이 '남'에게 들어 있다. 남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웃고, 부끄러워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다."

-배중훈 작가



월호·배중훈 지음 | 변형신국판 280쪽 | 16,500원

민족사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빌딩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s.com 이메일, minjoksas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원재승)